

2021년 7월 5주 |

# 키움 ESG Week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I 글로벌 ETF/주식 김진영 02-3787-4870 / jykim@kiwoom.com

RA 이지민 02) 3787-4776 / jimin.lee@kiwo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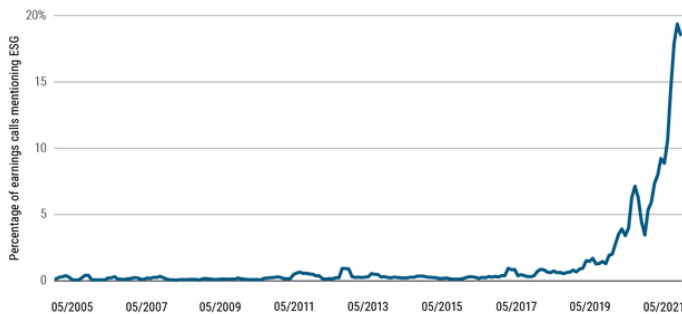


Weekly Issue:

## 기업 컨퍼런스콜에서 “ESG” 용어 언급 급증

- 전세계 2.2조 달러 자산을 보유한 PIMCO, 7/14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의 컨퍼런스콜에서 ESG 용어가 언급된 비중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
- 2005.5~2021.5월 발표된 전세계 1만 개 기업의 컨퍼런스콜을 분석한 결과, 2018.5월까지의 ESG가 언급된 비중이 0~1%에 그쳤으나, 2021년 5월까지 최근 2년 동안에는 19%로 급증한 것. ESG 투자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최근 몇 년간 지속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ESG’ 용어 사용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 특히 최근 ▲미국의 파리협정 재가입, ▲유럽연합의 ‘유럽그린딜’ 통과, ▲전세계 국가들의 2050년 탄소중립 비전 제시, ▲친환경 제품에 대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자 하는 MZ 세대들의 부상, ▲페이스북·아마존·알파벳 등 대형 기술기업들의 RE100 선언 등이 기업들의 행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
- 자산운용사들의 적극적인 ESG 투자 상품 출시 및 개발도 기업들의 ESG 대응을 앞당겼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장 최근 7월 15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기후변화 전환에 포커스를 둔 ESG ETF를 출시, 이는 골드만삭스가 출시한 첫 액티브(Actively-managed) ETF로, 골드만삭스는 현재 우리가 산업 혁명의 규모 및 디지털 혁명의 속도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혁명’의 도래 시점에 서 있다고 평가하기도. 앞서 4월 블랙록이 선보인 기후변화 ETF 역시 당일 \$10억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올해 신상품 런칭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힘

### 기업 컨퍼런스콜에서 ‘ESG’ 언급, 2019년 이후 급증



자료: PIMCO

# 주간 ESG 뉴스

## 국내외 주요 ESG 뉴스 Update (7/19~23)

### ▲ 기후 및 환경 관련

7/19	<p><b>EU's Fit for 55 to Fuel Long-Term Costs of Metals, Fertiliser Producer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tch Rating, EU의 새로운 Fit for 55 계획이 EU로 수출하는 유럽의 금속 및 비료 생산 기업에 장기적으로 탄소 비용과 Capex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 특히 탄소 무상할당량 축소, ETS의 연간 배출 상한선 감축,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은 해당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li> <li>- Fit for 55에 따라, EU의 금속 및 비료 생산 업체들에 대한 연간 탄소배출 축소폭은 현재 2.2%에서 4.2%로 확대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한 배출 한도 상한선 또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 됨. 이 가운데 탄소가격은 올해 이미 신고가에 도달했으며, 정책 시행 후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li> </ul> <p><a href="https://bit.ly/3hQt1NE">https://bit.ly/3hQt1NE</a></p>
7/19	<p><b>지구촌 곳곳 기후변화로 신음...폭염과 홍수 피해 '뉴노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 홍수 등으로 인한 기후 변화의 피해 상황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li> <li>- 프리데리케 오토 옥스퍼드대 환경변화연구원장은 지구온난화가 진행 중이 아니라면 북미의 폭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라이프치히 대학 기상학자 요하네스 파스 역시 기후변화가 '뉴노멀'이 됐다면서 기후변화는 정상적 날씨의 정의를 바꾸고 있으며, 폭우가 새로운 일상이 되는 세상이 서서히 도래하고 있다고 경고</li> <li>- 이번 폭염과 홍수는 공교롭게도 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수개월 앞두고 발생했는데,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이 논의되며, 각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출할 예정</li> </ul> <p><a href="https://bit.ly/3vDopg">https://bit.ly/3vDopg</a></p>
7/19	<p><b>The next big financial crisis could be triggered by climate chang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 규제 및 규제 당국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최근에는 '기후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금융 규제 기관과 중앙은행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li> <li>- 규제 기관이 재정 관련 리스크를 처리하고 대담한 기후 정책을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1) 은행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공시하고, 기후변화 관리 능력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진행하도록 하는 것, 2) 녹색 양적완화(green quantitative easing) 도입 등 통화정책을 통한 기후변화 해결 등이 있음</li> <li>- 금융 규제는 갑작스러운 기후 관련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리스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한편 금융 규제만으로는 기후 변화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 있으므로 국가가 나서 기후 변화를 관리하려고 할 때 중앙은행들 또한 맡은 바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li> </ul> <p><a href="https://bit.ly/3hPt10y">https://bit.ly/3hPt10y</a></p>
7/20	<p><b>Why is the European Commission doing Washington's bidding on taxa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집행위, 최근 엘런 매 재무장관으로부터 CBAM(탄소국경세)와 디지털세에 도입에 대해 지적을 받은 이후,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G20 및 OECD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조세개편 계획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 연기 결정</li> <li>- 이에 대해 Valerie Hayer &amp; Jose Manuel Fernandes 유럽의회 의원들은, "더 이상 결정을 연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EU 집행위는 1) EU 디지털세를 포함한 새로운 자체 대응책을 빠르게 보완하여 제시하고, 2) OECD/G20 협정의 이점을 잘 활용하면서, 글로벌 조세 개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EU 예산과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 더불어 경제 회복 계획은 향후 수십년 동안 유럽인들에게 혜택을 안겨줄 수 있으면서 새롭고 개선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li> </ul> <p><a href="https://politi.co/3eAOfxe">https://politi.co/3eAOfxe</a></p>
7/22	<p><b>블랙록, 기후대응 못한 255명 이사진 반대, 작년 대비 5배 이상 증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지난 1년 간 버크셔 해서웨이, 엑손모빌 등 기후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기업 이사진 255명의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남. 이는 작년 55명에 비해 5배 이상 큰 폭 증가한 수준. 기후 관련해 반대표를 던진 기업 또한 53곳에서 319곳으로 대폭 늘어남</li> <li>- 한편, 지난해 블랙록은 244개 기업이 기후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들 기업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 보고서에서 블랙록은 이들 기업 상당 수가 큰 진전을 이뤘다고 보고, 블랙록은 기후 리스크 모니터링 기업을 1000개 이상으로 확장했고, 이들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에 해당하는 스코프1(Scope1), 스코프2(Scope2) 기준 전 세계 배출량의 90%를 차지한다고 밝힘</li> <li>- 위임(대리) 투표의 경우, 주주총회 회의에서 42% 가량 경영진의 제안 사항에 대해 반대표를 던짐. 지난 한 해 6만 4000명이 넘는 이사진 선임 투표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사진에 대해 10% 가량 반대표를 던진 것. 블랙록이 이사진 선임에 반대한 이유로는 ▲이사회 독립성 결여(2222 표) ▲이사회 다양성 결여(1862 표) ▲임원진 보상에 대한 우려(931 표) ▲과도한 약속(758 표) 등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음</li> </ul> <p><a href="https://bit.ly/36SLXVZ">https://bit.ly/36SLXVZ</a></p>
7/24	<p><b>Next step for EVs: Design batteries to strengthen car, extend rang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들 사이, 차체 구조를 강화하면서 주행 거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최근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보다 가벼운 무게와 높은 에너지 효율성을 보유한 구조형 배터리(structural battery)가 화제인데, Geely의 볼보 자동차는 6월 말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 Northvolt와 협업하여 개발 중인 구조형 배터리를 공개, 한 번의 충전으로 테슬라 모델 Y의 주행거리인 326마일의 약 2배에 달하는 600마일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고 설명</li> <li>- 현재 구조형 배터리 기술은 개발 초기단계에 있으며, 테슬라, GM 등의 차량 제조업체 및 BYD, CATL 등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개발에 나선 상황</li> </ul> <p><a href="https://reut.rs/3xacgli">https://reut.rs/3xacgli</a></p>

▲ 기타/통합

**Mentions of 'ESG' and sustainability are being made on thousands of corporate earnings calls**

- 핑코가 2005.5~2021.5 월 발표된 전세계 1만 개 기업의 컨퍼런스콜을 분석한 결과, 2018.5월까지의 ESG가 언급된 비중이 0~1%에 그쳤으나, 2019년까지 1년간 ESG가 언급된 경우는 5%로 늘었고, 2021년 5월까지 2년 간으로 보면 19%로 급증. ESG 투자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최근 몇 년간 지속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ESG' 용어 사용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
  - 특히 최근 미국의 파리협정 재가입, 유럽연합의 '유럽그린딜' 통과, 전세계 국가들의 2050년 탄소중립 비전 제시, 친환경 제품에 대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고자 하는 MZ 세대의 부상, 페이스북-아마존-알파벳 등 대형 기술기업들의 RE100 선언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
  - 자산운용사들의 적극적인 ESG 투자 상품 출시 및 개발도 기업들의 ESG 대응을 앞당 김. 가장 최근 7월 15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기후변화 전환에 포커스를 둔 ESG ETF를 출시. 이는 골드만삭스가 출시한 첫 액티브 ETF로, 골드만삭스는 현재 우리가 산업 혁명의 규모 및 디지털 혁명의 속도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혁명'의 도래 시점에 서 있다고 평가. 앞서 4월 블랙록이 선보인 기후변화 펀드 역시 출시 당일 10억달러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올해 신상품 런칭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힘
  - 미국 사회책임투자포럼 재단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미국 ESG 투자자산은 17.1조 달러로, 2018년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https://on.mktw.net/3eBF8vZ>

**From sustainability and CSR to ESG**

- ESG와 지속가능성은 종종 함께 쓰이지만 동일한 요소가 아니며, 데이터 공식 및 벤치마킹과 관련하여 실제로 둘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 두 요소는 환경 및 사회적 측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몇 가지 유사한 부분들이 있지만, 지속가능성은 기업마다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특정 기준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것에 있어 차별화
  - 또한 지속가능성은 기업 경영의 책임감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반면, ESG는 ESG와 관련된 기업의 노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줌. 한편 스토리텔링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CSR과 달리 ESG는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투자자의 입장에서 정량화할 수 있도록 만든 척도라고 볼 수 있음
  - 지속가능성 및 CSR을 중시하던 과거 자본 시장과 달리 최근에는 ESG가 헤드라인에 보다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지속가능성 및 CSR에서 ESG 성과 측정으로 그 초점이 전환된 것은 비즈니스의 관행이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측정하는 보다 정확하고 섬세한 방향으로 성숙해졌음을 의미. 마찬가지로 산업계가 더욱 발달함에 따라 기업들은 ESG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추적하는 방안을 개선해야 함
- <https://bit.ly/2TsmY8U>

**OPINION: Why the SEC should consider corporate and investor ESG disclosures**

- 최근 수백명의 투자자, 기업 및 지속가능성 옹호자, 시민단체 등이 일관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ESG 정보 공시를 강화하려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움직임에 대해 지지를 표명. 최근 이들은 기후 변화와 ESG 관련 문제가 재무 시스템 및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투자 전략이 궁극적으로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어떻게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를 강조
  - ESG 정보 공시와 관련된 리스크는 기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 수준에서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다행히 현재 SEC는 투자자들의 DEI(다양성, 평등, 포용) 정보 공시를 의무화 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투자자들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 특히 효과적인 공시 규제 마련을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 구성된 전체 시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 <https://tmsnrt.rs/3kC34Di>

**Europe's Biggest Banks Warn of Major Flaw in a Key ESG Metric**

- بلوم버그에서 유럽 주요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각 은행들이 기후 친화적인 기업과 프로젝트들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대출해줬는지 밝혀야하는 유럽의 녹색자산비율(Green Asset Ratio)이 현실과는 다른 왜곡된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예상. 특히 많은 소규모 혹은 국제 기업들이 비율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 향후 유럽 은행들은 기후 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할 것이며, 향후 친환경과 거리가 먼 금융 기업들에 처벌을 가하게 될 것. 또한 여기서 뒤쳐진다고 인식되는 대출 기관은 투자자와 예금자를 잃을 리스크도 보유
  - 유럽은행당국(EBA)은 향후 녹색자산비율 지표가 은행들의 투자, 지속가능 전략, 기후 변화 관련 리스크 완화 계획 등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 또한 올바른 규제 프레임워크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가용성, 품질 및 정보 교환 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
- <https://bloom.bg/3y5mdj>

**주요 중앙은행·연기금, 코로나 이후 ESG 친화적 정책 늘려**

- 민간 싱크탱크 OMFIF가 전세계 102개 공공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 사태와 다른 장기적인 추세가 이들 기관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연기금 등의 ESG 친화적인 변화가 가속화됐고 행동주의 투자도 강화 됨
  - OMFIF의 대내 크리아코플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로 (공공 투자기관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었다"며 "팬데믹 초기에는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봤으나, 금융시스템이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생겼다"고 평가. 즉, ESG 등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의미
  - 또한 이번 조사에서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행동주의 투자 추세가 두드러졌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다수의 국부펀드나 연기금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해 이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에 나서도록 변화시키고 있음
- <https://bit.ly/3rs2lRn>

**OECD, 코로나 이후 경영회복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강화할 것**

- OECD가 최근 발간한 '코로나 19 위기 이후 자본시장 내 기업지배구조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들에게 '복잡한 기업 구조'가 최대 리스크 및 핵심 과제로 손꼽힘. 코로나로 인해 기업 실적과 리스크에 대한 정밀 조사가 저조한 것이 가장 큰 이유
  - 지난 해 전 세계 비금융 상장사 1만개의 총 매출액은 2019년 동기 대비 9% 감소, 특히 에너지 산업이 2020년 2분기 매출이 50% 하락했으며, 3-4분기에는 27%와 26% 감소해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이로 인해 2020년 말 전 세계 회사채는 15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은 3만개가 넘으며 이는 현재 전체 상장기업의 75%에 해당하는 수준. 상장 기업 수 감소, 기업 성장 저조로 인한 경영구조가 악화되면서 임원 급여 조정 등 여러 경영 리스크에 대한 우려까지 일고있는데 OECD는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로 악화된 기업 경영구조와 자본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강화를 우선시할 것을 강조
- <https://bit.ly/3kU161m>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국내외 기업 ESG 동향 Update (7/19~23)**

**▲ 기후 및 환경 관련**

**볼보도, BMW도 "저탄소 철강을 잡아라"**

7/21 -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공급망 협력업체들에게 청정에너지 전환을 요청하고, 저탄소 철강업체와 협약을 맺는 중. 포르쉐는 이달 초 공급망 내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1300개 공급 업체에 청정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으며, 볼보는 자동차 공장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설계 중이며, BMW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다양한 저탄소 기업에 투자할 예정

- 볼보는 2026년까지 석탄 대신 녹색 수소를 이용한 생산 공정을 설계하기 위해 북유럽 철강업체 SSAB와 협력을 체결. 친환경 철강을 기존 볼보 제품에 도입하기 위함으로 이들은 친환경 철강 기반 자동차 시제품을 제작할 계획. 초기에는 일부 차량에만 시험적으로 적용하지만 제조 공정을 혁신해 볼보의 모든 차량에 확대 적용할 예정. BMW는 지속가능성 및 청정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총 9억 달러(1조 341억 원) 규모의 기업 벤처펀드를 마련.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최초이자 최대 투자 금액

<https://bit.ly/3wTMT77>

**[ESG 경영] 엔씨소프트, 'AI 윤리' 개선 주력...게임업계 ESG 새 지평 열까**

7/21 - 엔씨소프트, ESG 경영위원회 설치하며 AI 시대 리더십과 윤리에 초점을 맞춘 경영 펼치겠다는 의지 내비침. 동사의 ESG 경영 핵심 분야는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환경 생태계의 보호 ▲AI 시대의 리더십과 윤리 등 4가지로 구성

- 또한 게임업계 내 AI 기술력 강화가 중요해지면서, AI 윤리에 대한 필요성도 급부상. 이를 위해 엔씨소프트는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해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사회학, 법학, 정치학 등 인문·사회적 요소가 융합된 AI 윤리 커리큘럼 연구를 지원할 계획

<https://bit.ly/3zIGbIE>

**[Go-ESG] LG전자 "2030년까지 업무용 차량 100% 무공해 전환"**

7/21 - LG 전자, 2020~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중장기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LG 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추구하는 경영활동, 성과, 목표, 진척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

- 동사의 새로운 중장기 지향점은 '(E)긍정적 환경가치+', '(S)포용적 사회가치+', '(G)신뢰받는 경영+'으로, 긍정적 환경가치+의 구현을 위해 LG 전자는 2050년까지 국내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선보임. 다음으로 LG 전자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터를 만들어 포용적 사회가치+를 구현하고, ESG 컴플라이언스 강화/다양성, 합리성, 투명성을 추구하는 ESG 의사결정 체계 구축/ESG 경영문화 조성을 통해 신뢰받는 경영+을 시행하고자 함

<https://bit.ly/2UoRv89>

**영국 FT에 현대차 비판 전면광고 'IRONIC' 뜬 까닭은?**

7/24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현대차그룹을 비판하는 전면 광고가 실림. 겉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등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해외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 함. '아이러니(IRONIC)'은 현대차의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이오닉(IONIC)'을 '부조화' 또는 '모순'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irony'와 합성해 비꼬는 것.

- 이 광고를 실은 호주의 환경단체 '마켓 포시스'는 "현대차와 현대건설은 석탄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진정으로 기후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현대건설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강력히 반발에 나서고 있는 중.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현대건설 탈석탄 선언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현대차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로 전환을 아무리 노력해도, 현대건설이 짓는 석탄 발전소 하나에 의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비판

<https://bit.ly/2TCF5nc>

**▲ 기타/통합**

**100대 기업 중 24곳, 경영진 보수에 ESG 요소 반영**

7/19 - 지난 1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간한 '경영진 보수와 ESG 지표간 연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0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등기임원 및 경영진 보수상징 내역 조사 결과 24곳이 경영진 보수와 ESG 요소를 연계. 24곳 중 18곳은 사회(S) 영역 지표를 도입했으며, 지배구조(G)는 6개사가, 환경(E)는 4개사가 연계했다고 보고서는 밝힘. 또한, 단기 상여 연계기업(16개사)이 장기(4개사)보다 많았음

- 해외 기업의 경우 ESG 요소와 보수를 연계하는 흐름은 국내보다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ISS ESG 조사결과, 국가별 ESG-보수 연계기업 중 최상 위권에 속한 기업으로는 프랑스 51%, 스페인 48%, 이탈리아 43% 등. 경영컨설팅그룹 윌리스 타워워트슨(WTW)에 따르면, 유럽 주요 지수 기업 중 ESG와 보수를 연계한 기업 비율은 63%에 달함. PwC에 따르면, 영국 FTSE 100의 45%가 ESG와 보수를 연계했다고 밝힘

<https://bit.ly/3IG253y>

**BlackRock throws its weight around**

7/20 - 대형 자산운용사 블랙록, 올해 ESG 주주제안에 대한 찬성을 두 배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남. 동사는 기업 이사진 재선임,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및 로비활동 그리고 다양성 등에 대한 보고를 늘리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 중

- 블랙록은 올해 S&P 500 기업들의 주주제안 중 35%의 안건에(843개 중 297개) 지지를 표했고, 이는 전년도 17%(889개 중 155개) 대비 증가한 수준. 또한 올해 주주총회에서 42% 가량 경영진의 제안 사항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 역시 전년도 39% 대비 증가한 수치. 블랙록, 뱅가드, SSGA와 같은 미국 대형 펀드 운용사들은 현재 S&P 500 주식 중 총 20.2%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권은 주주총회에서 매우 유의미한 상황. 이들이 환경 및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제안들에 투표를 행사하기 시작한다면 기업들의 전체적인 그림(Entire Landscape)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

<https://politi.co/3roH3e>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준은 'AA 표준'**

- 국내 대기업, 공기업, 재단 등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활용하는 국제 표준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준은 검증 표준인 어카운터빌리티 (AccountAbility, AA)인 것으로 나타남. 20 일 '임팩트온'이 한국표준협회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DB에 올라온 '2020 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138 개를 분석한 결과, 71%에 해당하는 98 개가 어카운터빌리티 표준을 보고서 작성에 활용
  - 7/20 - 어카운터빌리티는 1995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기업들이 발행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제 3자 검증(assurance)을 위한 글로벌 표준을 개발. AA1000 시리즈는 AA1000AP(보고서 검증 원칙), AA1000AS(보고서 검증절차 표준), AA1000SES(이해관계자 참여 표준)로 구성되어 있음
  - 어카운터빌리티 다음으로 많이 활용된 기준은 ISO 인증, 그리고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원칙.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GRI나 SASB, TCFD 등의 기준은 제외 함
- <https://bit.ly/3iyUrqC>

**Investors' Top ESG Stocks and Investment Firms are Full of Surprises**

- 미국 Investopedia-Treehugger가 공동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ESG 투자자들 사이 ESG 경영에 대한 평판이 가장 좋은 기업은 테슬라인 것으로 나타남. 이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알파벳(구글), 포드 등이 상위권을 차지
  - 7/21 - ESG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자산운용사 인지도 조사에서는 뱅가드가 1위를 차지했고, 피델리티, iShares(블랙록), 찰스슈왈 등이 뒤를 이음. 응답자의 55%가 뱅가드를 ETF 상품을 판매하는 기관으로 인지했고, 28%는 ESG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지
  - 또 한편,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기업의 ESG 평가 시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ESG 등급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ESG 정보는 주로 금융/경영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얻고, 일반적으로 기업 간 비교를 통해 어떤 기업이 ESG 원칙을 더 준수한다는 정도의 상대 평가에 더 익숙한 것으로 조사 됨
- <https://bit.ly/3zyYWs0>

**OECD, 코로나 이후 경영회복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강화할 것**

- OECD가 최근 발간한 '코로나 19 위기 이후 자본시장 내 기업지배구조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들에게 '복잡한 기업 구조'가 최대 리스크 및 핵심 과제로 손꼽힘. 코로나로 인해 기업 실적과 리스크에 대한 정밀 조사가 저조한 것이 가장 큰 이유
  - 7/23 - 지난해 전 세계 비금융 상장사 1만개의 총 매출액은 2019년 동기 대비 9% 감소, 특히 에너지 산업이 2020년 2분기 매출이 50% 하락했으며, 3-4분기에는 27%와 26% 감소해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이로 인해 2020년 말 전세계 회사채는 15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전세계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은 3만개가 넘으며 이는 현재 전체 상장기업의 75%에 해당하는 수준. 상장 기업 수 감소, 기업 성장 저조로 인한 경영구조가 약화되면서 임원 급여 조정 등 여러 경영 리스크에 대한 우려까지 일고있는데, OECD는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로 약화된 기업 경영구조와 자본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강화를 우선시할 것을 강조
- <https://bit.ly/2TAx2N9>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ESG 투자 동향 (7/19~23)

▲ 주식 및 펀드 시장

7/18	<p><b>European ESG Assets Shrank by \$2 Trillion After Greenwash Rul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ISA에 따르면, 유럽에서 그린워싱 방지 규정(anti-greenwashing rules)이 예고된 이후 ESG 투자자산이 2018~2020년 사이 \$2조 규모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됨(2018년 14조 달러에서 2020년 12조 달러). 동 기간 미국의 지속가능한 투자자산은 \$12조에서 \$17조로 증가</li> <li>- GISA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ESG 투자에 대한 투자자 열정이 약화되어서가 아닌, 정책 입안자들의 지속가능 투자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또한, 만약 관련 규제가 없었더라면 EU의 ESG 투자 자산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게 유지됐을 것이라고 평가</li> <li>-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로 알려진 EU의 그린워싱 방지 규정은 올해 3월 도입됐으며, 펀드 매니저들은 해당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의 ESG 성과를 평가하고, 금융상품을 Article 8 &amp; 9 중 하나로 분류해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들을 공시해야 함</li> </ul> <p><a href="https://bloom.bg/3hNlr1A">https://bloom.bg/3hNlr1A</a></p>
7/20	<p><b>FCA increases scrutiny on ESG fund launche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자산관리 업계 불량 ESG 펀드 출시를 경고. Nick Miller FCA 자산관리감독 총 책임이 AFM 의장에 보낸 서한에서, 일부 운용사들이 규제 기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ESG 펀드를 시장에 판매한 점을 지적. ESG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서도 펀드 명에 ESG 관련 이름을 넣는 등 그린워싱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 문제에 대해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li> <li>- 또 향후 지속가능성/ESG 펀드는, 그 투자 전략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목표에 대한 계획이 합리적인 것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편, 올해 3월 10일 유럽에서는 ESG 펀드 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인 'SFDR'이 발효 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유럽 내 금융기관들은 ESG 상품 설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정 공시기준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함</li> </ul> <p><a href="https://bit.ly/3k8mqbT">https://bit.ly/3k8mqbT</a></p>
7/20	<p><b>Future Returns: Sustainable Investing Poised to Gain Asset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ISA에 따르면 전세계 ESG 투자 자산은 2020년 35.3조 달러로 증가했으며, 2년 주기로 발표될 다음 보고서에서 그 수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전체 투자자산의 약 48%를 차지하는 미국에서 ESG 관련 규제 및 법안들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점을 성장동력 중 하나로 지목</li> <li>- 또한 리테일 시장에서의 ESG 상품 성장세가 기대되는 상황. 그 동안 리테일 시장 내 주요 상품인 퇴직연금 시장에서 ESG 전략을 활용한 상품들이 매우 희소했는데,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응, ESG 상품 옵션을 더 많이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li> <li>- 한편, 지속가능 투자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략은 ESG 통합(integration)으로, 약 25.2조 달러에 해당. 이는 2018년 통계 시 '네거티브 스크리닝'이 가장 성행했던 것에서 바뀐 큰 변화로, 네거티브/배제 전략은 여전히 유럽 지역에서 가장 인기있는 전략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통합 전략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li> </ul> <p><a href="https://bit.ly/2UvVbVv">https://bit.ly/2UvVbVv</a></p>
7/25	<p><b>수은, 차세대 모빌리티에 1000억 투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수출입은행, 올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출자사업에 나설 계획. 1000억원 규모의 수은 출자금은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친환경선박, 항공우주 등 K-뉴딜과 연관된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 집중 투자될 예정</li> <li>- 수은은 정부의 K-뉴딜 정책에 부응하고 운용사의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투자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지난 1일 확정·발표한 '수은 ESG 경영 로드맵'에 따라 운용사 선정시 ESG 요소를 평가 항목에 반영해 사회적 책임 투자도 도모할 것</li> </ul> <p><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17126629118128&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17126629118128&amp;mediaCodeNo=257&amp;OutLnkChk=Y</a></p>

▲ 채권 시장

7/21	<p><b>NH농협캐피탈, 1000억원 규모 ESG채권 발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적으로는 △2년 6개월 만기 채권 400억원 △3년 만기 채권 300억원 △5년 만기 채권 300억원 등. 금리는 2년 6개월물 연 1.806%, 3년물 연 1.874%, 5년물 연 2.084%. 조달 자금은 향후 저소득 농업인을 위한 '오토특화상품 금융'과 서민을 위한 '신용대출 서비스'에 활용 예정</li> <li>- NH농협캐피탈은 ESG채권 발행을 위해 내부 ESG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함. 인증기관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검증보고서도 취득. 박태선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는 "농협이 곧 ESG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ESG 경영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함</li> </ul> <p><a href="https://bit.ly/3hSukfa">https://bit.ly/3hSukfa</a></p>
7/25	<p><b>SK에코플랜트, ESG채권 연속 흥행...1조 1200억원 물렸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가 공모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이 흥행에 성공. 22일 실시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총 모집금액 1500억 원의 7배 규모인 1조 1200억 원의 자금이 물린 것. 동사는 약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회사채 발행 규모를 총 3000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 SK에코플랜트는 2월 공모한 그린본드에도 수요예측 당시 모집금액 1500억 원의 8배가 넘는 1조 2100억 원이 물려 흥행에 성공한 바 있음</li> <li>- 회사채 구성은 만기 2년물 1000억 원과 만기 3년물 2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3년물은 지속가능채권으로 발행. 조달 자금은 친환경기업 인수와 친환경 건축물 투자, 비즈파트너 상생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li> </ul> <p><a href="https://bit.ly/36ZUoPa">https://bit.ly/36ZUoPa</a></p>

자료: 언론보도,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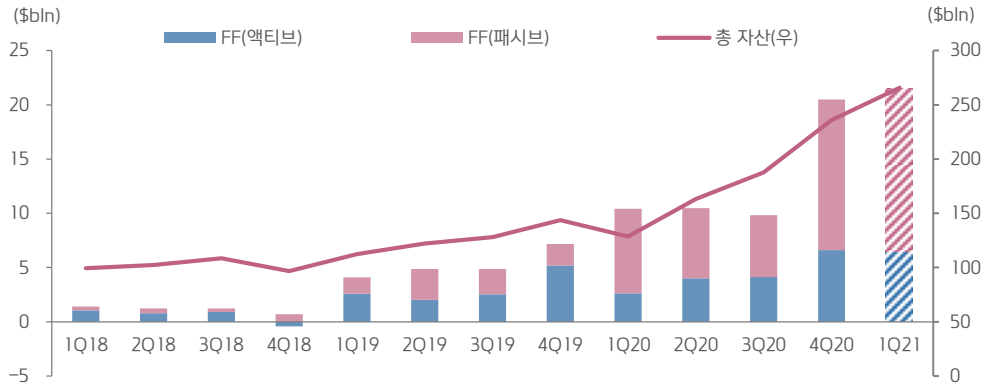
# ESG 이벤트 일정

날짜	국가	이벤트	내용
3/10	유럽	<b>SFDR 발효</b>	-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 기관들, ESG 리스크로 인한 재무적 손실, 환경, 사회적 목표에 기여하는 투자 규모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됨. 18.3월 EU 지속가능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금융권 내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제고 목표
4/21	유럽	<b>NFRD 개정안 발표</b>	- EU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최종 개정안 발표. 기존 NFRD 용어를 CSRD 로 변경 제안하고, NFRD 규칙의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 등 포함. 이번 제안에 따라 비 EU 법인의 EU 자회사도 의무보고 대상이 되며, 국내 대기업도 적용 대상 - 7월 EU 집행위의 기후법(Fit for 55)입법에 앞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따른 노력과 비용 분담 방법 논의 하기 위한 회담 개최
5/24~25	유럽	<b>EU 정상회의</b>	- 이날 특별 회담을 통해 코로나 19 및 기후 변화, 벨라루스 제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EU 대응을 논의. 회원국에 기후 변화의 환경-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 입법안을 신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11월 COP 26 회의 앞두고 G20 회원국들의 열정 보여줄 것을 장려
5/29	한국	<b>2050 탄소중립위 출범</b>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로 공식 출범 -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통합한 자문기구로, 향후 경제-산업-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예정
5/30~31	한국	<b>P4G 서울정상회의</b>	-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등 12개 국가 참여 -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계획 논의
6/28	유럽	<b>유럽 기후법 승인</b>	- 2050년까지 EU에서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유럽 기후법"을 승인.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골자로 함 - 앞서 4월 이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며 28 일(현지시간) 합의안에 공식 승인한 것. 탄소 중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것은 유럽이 처음
7/14	유럽	<b>Fit for 55 패키지 발표</b>	- 2030년까지 유럽내 탄소 55% 감축(1990년 대비)을 위한 전략으로 유럽집행위는 12개의 입법안 발표. 구체화된 탄소국경조정세(CBAM) 초안, 탄소거래제(ETS) 개정안 등이 포함 될. 이 외에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등 항공-해운-육상운송 산업 등에서도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된 모습. 향후 Fit for 55와 관련된 포괄적인 방안은 앞으로 약 2년에 걸쳐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심의와 승인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
7/16	중국	<b>배출권거래제 도입</b>	- 중국 전체의 탄소배출권 거래가 상하이 거래소 한 곳에서 통합돼 진행 시작. 초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화석 연료로 전 세계 탄소 배출의 7분의 1을 발생시키는 중국의 전력 기업 2,225곳을 대상으로 배출권 배정했고, 향후 적용 업종을 넓혀나갈 계획
3분기 중	유럽	<b>ESAP 설립 입법안 상정</b>	- EU 공통의 ESG 데이터 수집을 위한 유럽 단일접속지점(ESAP, European Single Access Point)을 설립하는 입법안 상정
10월 중	한국	<b>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적용</b>	- 환경책임투자 추진, 새활용 산업지원 근거 등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4월 12일에 공포되어 6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
	한국	<b>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b>	- 탄소중립 위원회,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2030 NDC 상황과 함께 10월에 발표하기로 결정. 7월에는 2050 시나리오 위원회 안을, 8월까지의 NDC 위원회안을 마련
	중국-EU	<b>중-EU 테크노미 개발 논의</b>	- 양국 시장에서 공동으로 인정되는 테크노미 시행을 목표로, G20 정상회의에서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
10/11~24	글로벌	<b>생물다양성협약 COP15</b>	-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국제 행사로, 2020년 이후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국제적 프레임워크 만들기 위한 논의 이뤄질 것으로 전망. 생물 다양성의 손실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식서지 보호, 수질 개선, 외래종 통제 등) 등 논의
11/1~12	글로벌	<b>UN 기후변화협약 COP26</b>	-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며, 각국 정상 및 기후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 행동 서약 등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기존 20년 11월에서 1년 연기 됨 - 또한 ESG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 (ISSB) 창설을 공식화 할 것으로 예상
하반기 중	한국	<b>K-ESG 평가지표</b>	- 산업통상부, 한국형 ESG 지표 표준 마련을 위해 준비 중이며 하반기 중 확정안 발표 예정 - K-ESG 평가지표란, 기업과 여러 ESG 평가기관 등에게 가이던스 성격으로 제공되는 표준형 지표로 초안은 국내의 주요 13개 지표를 분석해 도출한 핵심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
	한국	<b>K-테크노미 마련</b>	- 환경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인 K-테크노미 마련. ESG 중 환경성과 평가와 관련 민간평가 기관의 지표를 분석해 평가 가이드라인 발표 - 당초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와의 조율이 장기화되며 이르면 9월, 늦으면 연말로 연기
연내	한국	<b>ESG 포털 구축</b>	-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의 ESG 정보공개를 원활하게 뒷받침하도록 ESG 정보공유 플랫폼(ESG 포털) 구축 예정 - 더불어 기후변화와 성평등을 비롯해 ESG와 투자성과를 연동한 지수와 ETF도 준비 중. 환경 쪽에서 배출권,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수 3개 정도를 내고, 사회 쪽에서는 여성 인력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
	아세안	<b>ASEAN 테크노미 개발 착수</b>	- 올해 말까지 '아세안 지속가능금융 분류법' 개발 착수 예정 - EU 테크노미 규정과 같은 지속가능한 금융 지원을 위한 아세안의 공동언어 필요성 지적 - 앞서 이를 위해 싱가포르 및 태국은행 총재 등 8명으로 구성된 테크노미 위원회 발족

자료: 언론보도 종합,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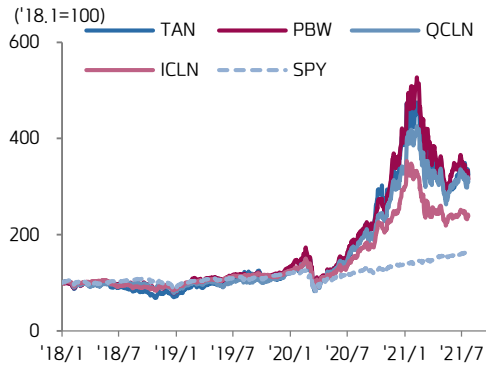
# ESG Chart

## 미국 ESG 펀드 자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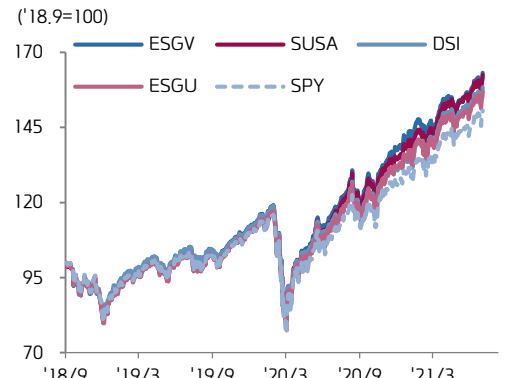
자료: Morningstar, 키움증권 리서치, 주) 21.3월 말 기준

## 대표 친환경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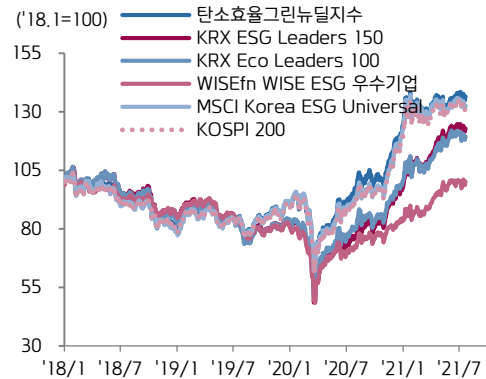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ESG 통합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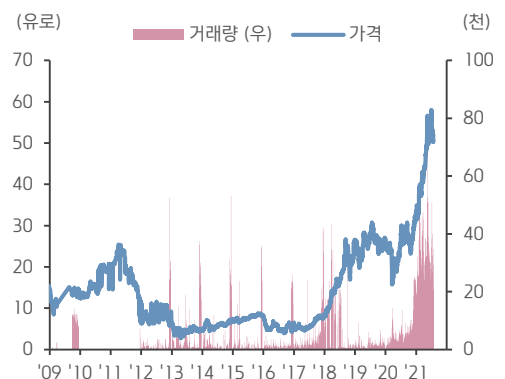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국내 대표 ESG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탄소배출권 가격 지수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 ESG ETF 주간 수익률

## 미국 ESG ETF 리스트 (1)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사회책임, ESG	0.15	20,498.1	+2.2	+3.3	+5.8	+17.7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사회책임, ESG	0.25	7,674.8	-2.0	-5.1	-3.0	+2.5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사회책임, ESG	0.20	6,123.3	+1.2	-0.9	+0.4	+8.7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6	6,005.5	+2.1	-2.1	-7.9	-20.1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ESG	0.12	4,858.6	+2.4	+3.3	+5.6	+17.3
USSG	Xtrackers MSCI USA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0	3,779.1	+2.1	+3.5	+5.8	+19.4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ESG	0.10	3,722.5	+2.2	+3.4	+5.9	+19.2
SUSA	iShares MSCI USA ESG Select ETF	ESG	0.25	3,523.7	+2.3	+3.5	+6.3	+19.4
DSI	iShares Trust -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	ESG	0.25	3,377.0	+2.2	+3.1	+5.6	+19.1
TAN	Invesco Sola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9	3,272.3	+3.5	-2.5	-8.2	-18.8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	2,606.9	+3.7	-3.5	-5.9	-8.6
VSGX	Vanguard ESG International Stock ETF	ESG	0.16	2,371.5	+0.3	-1.8	-0.2	+7.3
PBW	Invesco WilderHil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0	1,898.3	+1.4	-10.0	-10.5	-21.1
PHO	Invesco Water Resources ETF	환경친화적	0.60	1,787.9	+2.3	+5.0	+5.8	+20.2
LCTU	Blackrock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15	1,429.2	+2.2	+2.8	+6.0	N/A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ESG	0.10	1,400.1	+0.3	+1.3	+1.5	-1.3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1,206.9	+1.9	+3.3	+5.5	+17.4
FIW	First Trust Water ETF	환경친화적	0.54	1,119.7	+2.2	+3.6	+3.7	+19.4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ESG	0.35	1,066.5	+0.9	+0.7	+1.6	+15.6
CGW	Invesco S&P Global Water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9	1,033.6	+2.1	+4.1	+6.1	+19.3
SUSB	iShares ESG Aware 1-5 Year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2	1,015.0	+0.1	+0.1	+0.1	-0.5
ESML	iShares ESG Aware MSCI USA Small-Cap ETF	ESG	0.17	1,009.4	+2.2	-3.9	-2.0	+14.9
DRIV	Global X Autonomous & Electric Vehicles ETF	환경친화적	0.68	1,000.1	+2.6	-0.8	+1.1	+16.4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ESG	0.4	972.6	+2.0	-3.9	-1.8	+14.3
ACES	ALPS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55	928.6	+2.8	-5.9	-8.2	-12.9
LDEM	iShares ESG MSCI EM Leaders ETF	ESG	0.16	876.5	-1.7	-4.2	-2.1	+5.5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	866.7	+1.4	+0.9	+3.0	+13.1
NULG	Nuveen ESG Large-Cap Growth ETF	ESG	0.35	805.9	+3.5	+4.6	+7.4	+18.8
SUSC	iShares ESG Aware USD Corporate Bond ETF	ESG	0.18	791.6	+0.4	+1.5	+2.6	-1.3
SNPE	Xtrackers S&P 500 ESG ETF	ESG	0.10	673.3	+1.8	+3.4	+6.0	+18.5
LCTD	Blackrock World EX US Carbon Transition Readiness ETF	환경친화적	0.20	605.6	+1.1	-1.4	+1.3	N/A
SDG	iShares MSCI Global Impact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528.7	+0.9	-1.2	-0.6	+4.9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탄소 배출권 트레이딩	0.79	516.5	-3.6	-5.2	+8.7	+39.3
KRMA	Global X Conscious Companies ETF	ESG	0.43	492.4	+2.1	+2.9	+5.2	+17.9
IQSU	IQ Candriam ESG US Equity ETF	ESG	0.09	462.7	+2.4	+4.2	+6.4	+18.0
GRID	F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 Fund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0	435.1	+3.6	+2.4	+4.9	+16.8
ERTH	Invesco MSCI Sustainable Future ETF	환경친화적	0.65	412.5	+2.3	-1.9	-1.5	+0.8
IDRV	iShares Self-Driving EV and Tech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7	410.6	+1.9	-0.5	+2.4	+13.1
PBD	Invesco Global Clean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5	408.8	+2.4	-4.3	-6.8	-15.8
FAN	First Trust Global Wind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	387.3	+1.2	-2.0	-8.9	-9.9
CNRG	SPDR S&P Kensho Clean Power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45	362.2	+0.5	-6.1	-12.3	-10.7
USXF	iShares ESG Advanced MSCI USA ETF	ESG	0.10	358.4	+2.5	+2.9	+5.5	+18.6
NUMG	Nushares Etf Trust - Nuveen ESG Mid-Cap Growth ETF	ESG	0.40	354.9	+3.8	+3.3	+3.7	+13.0
EUSB	iShares ESG Advanced Total USD Bond Market ETF	ESG	0.12	315.7	+0.3	+1.1	+1.4	-1.0
SMOG	VanEck Vectors Low Carbon Energy ETF	환경친화적	0.62	301.0	+2.2	-1.2	-2.2	-5.9

자료: Bloomberg, 주) 2021-07-23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 미국 ESG ETF 리스트 (2)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PIO	Invesco Global Water ETF	ESG	0.75	299.8	+2.0	+4.1	+6.4	+18.4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사회책임	0.20	269.3	+2.5	+2.6	+5.5	+16.6
NUBD	Nuveen ESG US Aggregate Bond ETF	ESG	0.20	262.4	+0.2	+1.0	+1.0	-2.1
JUST	Goldman Sachs JUST US Large Cap Equity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20	253.4	+1.8	+3.1	+5.8	+17.8
EFIV	SPDR S&P 500 ESG ETF	ESG	0.1	252.9	+1.8	+3.4	+6.0	+18.5
NUMV	Nuveen ESG Mid-Cap Value ETF	ESG	0.40	242.5	+1.5	-0.7	+0.2	+20.3
EFAX	SPDR MSCI EAFE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20	240.1	+1.1	-0.6	+0.5	+8.1
KARS	KraneShares Electric Vehicles and Future Mobility Index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72	234.7	+3.2	+3.9	+9.2	+16.6
BGRN	iShares Global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219.8	+0.4	+2.1	+1.7	-1.1
BATT	Amplify Lithium & Battery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	0.59	211.6	+2.5	+2.3	+10.7	+13.0
IBD	Inspire Corporate Bond Impact ETF	ESG	0.58	206.1	+0.2	+0.7	+1.1	-0.6
D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AFE ETF	ESG	0.12	205.7	+1.7	-0.1	+1.1	+8.5
IQSI	IQ Candriam ESG International Equity ETF	ESG	0.15	191.9	+1.3	-1.0	+0.3	+8.8
KGRN	KraneShares MSCI China Clean Technology Index ETF	환경친화적	0.79	191.8	+0.5	-2.3	+9.0	+4.7
VCEB	Vanguard ESG U.S. Corporate Bond ETF	ESG	0.12	180.1	+0.5	+1.4	+2.5	-1.6
EEMX	SPDR MSCI EM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환경친화적	0.30	180.0	-1.9	-5.2	-4.2	+1.4
ESGG	FlexShares STOXX Global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2	179.5	+1.9	+2.1	+4.7	+15.4
ESG	FlexShares STOXX US ESG Impact Index Fund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32	169.8	+2.1	+3.2	+5.6	+17.9
ETHO	Etho Climate Leadership US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0.49	168.9	+1.9	-0.1	+1.5	+13.6
LRGE	ClearBridge Large Cap Growth ESG ETF	ESG	0.59	167.6	+2.8	+4.2	+8.0	+15.6
EMNT	PIMCO Enhanced Short Maturity Active ESG ETF	ESG	0.27	153.0	+0.0	+0.0	-0.0	-0.0
ESGA	American Century Sustainable Equity ETF	ESG	0.39	148.2	+2.2	+3.9	+6.3	+18.1
CTEC	Global X CleanTech ETF	청정에너지	0.50	146.8	+2.2	-5.7	-11.6	-15.7
NUDM	Nuveen ESG International Devel	ESG	0.40	134.0	+1.3	-0.5	+1.6	+9.1
RNRG	Global X Renewable Energy ETF	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	0.65	133.0	+1.1	-0.4	-1.0	-10.6
MXDU	Nationwide Maximum Diversification US Core Equity ETF	ESG	0.34	120.7	+3.1	+1.4	+4.9	+12.6
LOWC	SPDR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환경친화적	0.20	115.9	+1.5	+1.0	+3.0	+12.8
HYXF	iShares Trust iShares ESG Advanced High Yield	사회책임, ESG	0.35	113.1	+0.4	+0.2	+0.8	-0.1
NUEM	Nuveen ESG Emerging Markets Equity ETF	ESG	0.45	107.0	-1.3	-4.1	-0.8	+6.7
GRNB	VanEck Vectors Green Bond ETF	환경친화적	0.20	96.5	+0.1	+0.8	+0.9	-1.4
RESP	WisdomTree US ESG Fund	ESG	0.28	96.4	+2.6	+3.6	+4.7	+18.2
NUHY	Nuveen ESG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ESG	0.35	94.1	+0.0	-0.0	-0.2	-0.9
HKND	Humankind US Stock ETF	사회책임	0.11	85.3	+1.8	+1.7	+2.3	N/A
XWV	iShares ESG Screened S&P 500 ETF	사회책임, ESG	0.08	83.1	+2.0	+3.6	+5.9	+18.2
CHGX	Change Finance US Large Cap Fossil Fuel Free ETF	사회책임, 환경친화적, ESG	0.49	78.2	+3.1	+3.3	+6.1	+18.3
EVX	VanEck Vectors Environmental Services ETF	환경친화적	0.55	62.6	+1.3	+0.7	+1.9	+18.3
VEGN	US Vegan Climate ETF	사회책임, 기후변화, 환경친화적	0.60	59.7	+2.8	+3.0	+5.4	+17.2
EBLU	Ecofin Global Water ESG Fund	ESG	0.40	48.7	+1.8	+3.8	+4.2	+16.4
STNC	Stance Equity ESG Large Cap Core ETF	ESG	0.95	35.6	+1.6	+2.6	+5.5	N/A
HDRO	Defiance Next Gen H2 ETF	청정에너지	0.30	35.3	+2.2	-10.3	-16.6	N/A
RESE	WisdomTree Emerging Markets ESG Fund	ESG	0.32	34.1	-1.8	-3.8	-2.6	+5.9
HJEN	Direxion Hydrogen ETF	청정에너지	0.45	33.8	+1.7	-8.6	-12.8	N/A
GSFP	The Goldman Sachs Future Planet Equity ETF	ESG	0.75	33.2	+2.5	N/A	N/A	N/A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32.6	+2.3	+2.6	+4.6	+16.0
XIH	iShares ESG Screened S&P Mid-Cap ETF	사회책임, ESG	0.12	31.3	+2.1	-1.8	-2.9	+15.6

자료: Bloomberg, 주) 2021-07-23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 미국 ESG ETF 리스트 (3)

티커	ETF명	분류	운용보수 (%)	AUM (\$mln)	수익률(%)			
					1W	1M	3M	YTD
ESEB	Xtrackers J.P. Morgan ESG Emerging Markets Sovereign ETF	ESG	0.35	30.6	-0.2	+0.4	+0.9	-2.6
WOMN	Impact Shares YWCA Women's Empowerment ETF	사회책임	0.76	30.4	+2.3	+3.4	+6.0	+16.5
RBND	SPDR Bloomberg SASB Corporate Bond ESG Select ETF	사회책임,ESG	0.12	30.2	+0.4	+1.5	+2.6	-1.3
JCTR	JPMorgan Carbon Transition U.S. Equity ETF	기후변화	0.15	26.8	+2.1	+3.2	+5.9	+18.4
NULC	Nuveen ESG Large-Cap ETF	ESG	0.20	26.6	+2.1	+2.4	+4.4	+17.4
ESHY	Xtrackers J.P. Morgan ESG USD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ESG	0.20	24.5	+0.1	+0.2	+0.3	+0.8
ESGB	IQ MacKay ESG Core Plus Bond ETF	ESG	0.39	22.8	+0.2	N/A	N/A	N/A
RAFE	PIMCO RAFI ESG US ETF	ESG	0.30	20.6	+1.1	+0.1	+2.5	+19.2
EAOA	iShares ESG Aware Aggressive Allocation ETF	ESG	0.18	20.2	+1.2	+0.3	+2.5	+10.5
MID	American Century Mid Cap Growth Impact ETF	ESG	0.45	19.0	+5.3	+5.3	+10.3	+13.2
ESAG	Xtrackers MSCI EAFE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4	18.7	+1.3	-0.0	+0.2	+7.1
YLDE	ClearBridge Dividend Strategy ESG ETF	ESG	0.60	18.1	-0.4	+1.2	+2.8	+11.9
EMSG	Xtrackers MSCI Emerging Markets ESG Leaders Equity ETF	ESG	0.20	16.9	-1.5	-5.0	-3.5	+4.5
TEGS	Trend Aggregation ESG ETF	ESG	1.15	15.3	+3.7	-0.2	+3.3	+10.0
MOTO	SmartETFs Smart Transportation & Technology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68	14.5	+1.8	-1.4	-2.1	+9.8
ECLN	First Trust EIP Carbon Impact ETF	청정에너지	0.95	14.1	-0.3	+0.8	-1.5	+4.6
EMXF	iShares ESG Advanced MSCI EM ETF	ESG	0.16	13.4	-1.5	-4.3	-0.4	+6.3
XJR	iShares ESG Screened S&P Small-Cap ETF	사회책임,ESG	0.12	11.5	+1.8	-4.6	-3.6	+15.6
KESG	Kraneshares MSCI China ESG Leaders Index ETF	ESG	0.59	11.2	-2.5	-8.1	-4.5	+2.9
MIDE	Xtrackers S&P MidCap 400 ESG ETF	ESG	0.15	10.6	+2.0	-1.9	-2.5	N/A
SMLE	Xtrackers S&P SmallCap 600 ESG ETF	ESG	0.15	10.3	+1.7	-5.2	-2.6	N/A
ACSG	Xtrackers MSCI ACWI ex USA ESG Leaders Equity ETF	ESG	0.16	10.1	+0.4	-1.9	-0.5	+7.2
LOPP	Gabelli Love Our Planet & People ETF	ESG	0.00	10.0	+1.1	-0.1	+1.7	N/A
ECOZ	TrueShares ESG Active Opportunities ETF	ESG	0.58	9.9	+2.8	+3.2	+5.5	+13.0
CBSE	Changebridge Capital Sustainable Equity ETF	ESG	0.85	9.6	+2.3	-3.5	-1.3	+21.9
ESNG	Direxion MSCI USA ESG - Leaders vs Laggards ETF	ESG	0.40	8.7	+2.2	+4.0	+6.8	+21.0
BNE	Blue Horizon New Energy Economy100 ETF	청정에너지,	0.87	8.4	+2.3	-1.5	-4.3	+0.4
ESCR	Xtrackers Bloomberg Barclays Us IG Corporate ESG ETF	ESG	0.15	7.9	+0.4	+1.7	+2.4	-1.8
RESD	WisdomTree International ESG Fund	ESG	0.30	7.8	+1.5	+0.5	+1.9	+10.1
EAOR	iShares ESG Aware Growth Allocation ETF	ESG	0.18	7.8	+1.0	+0.5	+2.2	+7.6
IVLC	Invesco US Large Cap Core ESG ETF	ESG	0.48	7.3	+2.4	+4.7	+6.7	+18.2
PFUT	Putnam Sustainable Future ETF	사회책임,환경친화적	0.64	6.9	+4.2	+2.0	N/A	N/A
EAOM	iShares ESG Aware Moderate Allocation ETF	ESG	0.18	5.8	+0.7	+0.7	+1.9	+4.7
EAOK	iShares ESG Aware Conservative Allocation ETF	ESG	0.18	5.6	+0.6	+0.9	+1.8	+3.2
ESGN	Columbia Sustainable International Equity Income ETF	ESG	0.45	5.5	+0.7	-0.9	-0.5	+9.6
SDGA	Impact Share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lobal Equity ETF	사회책임	0.76	5.5	+1.1	-0.2	+2.1	+8.4
ESGY	American Century Sustainable Growth ETF	ESG	0.39	5.5	+3.3	N/A	N/A	N/A
ESGS	Columbia Sustainable US Equity Income ETF	ESG	0.35	5.4	+0.3	-1.8	-0.1	+19.4
SULR	SmartETFs Sustainable Energy II ETF	환경친화적,ESG	0.79	5.1	+1.9	-1.4	-0.6	+5.2
GBLD	Invesco MSCI Green Building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39	5.0	-0.1	-1.5	+0.7	N/A
LGBT	LGBTQ+ ESG100 ETF	ESG	0.75	4.0	+1.8	+3.0	N/A	N/A
AQWA	Global X Clean Water ETF	청정에너지,환경친화적	0.50	3.9	+1.2	+3.2	+4.2	N/A
FSST	Fidelity Sustainability US Equity ETF	ESG	0.59	3.1	+2.2	+2.6	N/A	N/A
EPRE	First Trust TCW ESG Premier Equity ETF	ESG	0.85	2.1	+3.1	+1.0	N/A	N/A
FDWM	Fidelity Women's Leadership ETF	ESG	0.59	2.1	+2.6	+1.2	N/A	N/A
IVRA	Invesco Real Assets ESG ETF	ESG	0.59	1.8	-0.0	-0.3	+3.8	+20.2
AVDG	AVDR US LargeCap ESG ETF	ESG	0.60	1.6	+1.8	+3.1	+6.2	+19.7
DTOX	Amplify Cleaner Living ETF	청정에너지	0.59	1.2	+1.9	-5.8	N/A	N/A

자료: Bloomberg, 주) 2021-07-23 종가 기준, 속성은 블룸버그 펀드검색 기능 상 기준, AUM 순 나열

## ESG 자료 발간 목록

2021/07/19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4주) <a href="https://bit.ly/3zwIBVW">https://bit.ly/3zwIBVW</a>
2021/07/12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3주) <a href="https://bit.ly/3imCdsg">https://bit.ly/3imCdsg</a>
2021/07/05	키움 ESG 브리프 Weekly (7월 2주) <a href="https://bit.ly/36uDxnC">https://bit.ly/36uDxnC</a>
2021/06/28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5주) <a href="https://bit.ly/3hfBRER">https://bit.ly/3hfBRER</a>
2021/06/21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4주) <a href="https://bit.ly/3gYwU2C">https://bit.ly/3gYwU2C</a>
2021/06/1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3주) <a href="https://bit.ly/35GxDix">https://bit.ly/35GxDix</a>
2021/06/0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2주) <a href="https://bit.ly/3gJAeM">https://bit.ly/3gJAeM</a>
2021/05/31	키움 ESG 브리프 Weekly (6월 1주) <a href="https://bit.ly/3uR3veJ">https://bit.ly/3uR3veJ</a>
2021/05/24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4주) <a href="https://bit.ly/3i283vZ">https://bit.ly/3i283vZ</a>
2021/05/17	키움 ESG 브리프 Weekly (5월 3주) <a href="https://bit.ly/3ugq4ce">https://bit.ly/3ugq4ce</a>
2021/05/1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a href="https://bit.ly/2QJ0yFx">https://bit.ly/2QJ0yFx</a>
2021/05/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1Q21 글로벌 ESG 펀드 리뷰 <a href="https://bit.ly/3bt8R97">https://bit.ly/3bt8R97</a>
2021/03/16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EU, SFDR 시행 <a href="https://bit.ly/3tLTsqA">https://bit.ly/3tLTsqA</a>
2021/02/02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4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a href="https://bit.ly/33JdTdi">https://bit.ly/33JdTdi</a>
2021/01/28	[ETF Issue] ESG, 금융시장에 밀려오는 거대한 물결 <a href="https://bit.ly/3eO4szl">https://bit.ly/3eO4szl</a>
2020/11/10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3Q20 글로벌 ESG 펀드 리뷰 <a href="https://bit.ly/3tLGgCi">https://bit.ly/3tLGgCi</a>
2020/10/21	[ETF Issue] 패러다임 대전환 속 Green ETF 투자 <a href="https://bit.ly/3bqxpzu">https://bit.ly/3bqxpzu</a>
2020/07/13	[ETF Weekly] 바뀌어 가는 미래 <a href="https://bit.ly/3uPfpX0">https://bit.ly/3uPfpX0</a>
2020/04/03	[오늘은 어떤 ETF를 볼까?] 코로나와 거스를 수 없는 ESG <a href="https://bit.ly/2SOCIrk">https://bit.ly/2SOCIrk</a>
2020/02/13	[ETF Issue] ESG, ETF로 투자하기 ver.2 <a href="https://bit.ly/3w8O1DA">https://bit.ly/3w8O1DA</a>
2019/04/01	iShares MSCI KLD 400 Social ETF(DSI,US)-글로벌 대표 ESG ETF <a href="https://bit.ly/3eMeqS8">https://bit.ly/3eMeqS8</a>
2019/03/29	[ETF Issue]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TF에 투자하기 <a href="https://bit.ly/3uZXZr7">https://bit.ly/3uZXZr7</a>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

**Compliance Notice**

---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고지사항**

---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